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관점에서 바라본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

김린¹, 박수진^{2*}

¹동양미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조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The Works of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with Reference to Intersectionality

Lynn Kim¹, Soo-Jin Park^{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주요 개념으로 채택하고 그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 개념인 교차성의 정의를 흑인 페미니즘 사상으로부터 그 시원을 찾아보고, 디자인에 있어서 교차성 개념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개괄했다.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작업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을 조형성, 디자인 방법론, 표현 매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발언의 타이포그래피 2)내러티브의 수집 3)장소특정적 설치와 같은 특징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디자인이 놓인 권력의 맥락을 전복하여 잊히거나 덜 조명된 입장들을 포용하는 교차성 개념을 근간으로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을 살펴본 결과 1)비가시성의 가시화 2) 객체의 주체화 3)변방의 탈주변화와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고가 탈중양화, 다양화되는 한국 사회 동시대 가치 변화에 발맞춰 디자인 철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 교차성, 융합, 타이포그래피, 내러티브, 장소특정성

Abstract This study adopts 'intersectionality' as a key concept of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s design works. As a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suggests the definition of intersectionality, from the idea of black feminism. Analysis of the features are such as 1) Typography of speech, 2) Collection of narrative, and 3) site specific installation. The inclusion of the various situations of the individuals reflected in the design throughout de Bretteville's works has made it possible to guarantee the intersectionality. De Bretteville overthrows the context of the power in which the design is placed, embracing forgotten or less illuminated positions. As a result, this research could derive three implications such as 1) visualization of invisibility, 2) subjectification of object, and 3) demarginalization of marginality. The perspective of the intersectionality are in line with the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might be an insight for researchers who want to establish a design philosophy.

Key Words : S. L. de Bretteville, intersectionality, convergence, typography, narrative, site specific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yang Mirae University

본 논문은 2018년 동양미래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o-Jin Park(curioussofa.sj@gmail.com)

Received March 29,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3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미국, 1940~)은 50여 년의 작품 활동을 통해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교육자로서 꾸준한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칼아츠(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 여성을 위한 최초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페미니스트 스튜디오 워크숍(Feminist Studio Workshop)'을 공동 창립하고 '우먼스 빌딩(Woman's Building)'과 '여성 그래픽 센터(Women's Graphic Center)'를 운영했다. 예일대학교 미술학교(Yale University School of Art)에서 종신교수직을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드 브레트빌은 디자인과 인권, 문화를 잇는 담론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드 브레트빌은 또한 공공예술가로서 홍콩, 러시아,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장소특정적 작품이 설치되는 지역 사회의 이웃들을 환대하고 비추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왔다. 2004년 드 브레트빌은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에서 '디자인 공헌 골드 메달(Design Legend Gold Medal)'을 받았다[1].

근래 사회 변화상으로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드 브레트빌의 작품이 갖는 시대적 의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2-4].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 드 브레트빌의 작품 세계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과 같은 앤솔러지 번역서에 단편적으로 다루지는데 그치고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적 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방법론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채택한다.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에 드러나는 전반적인 디자인 특징을 찾고, 그 결과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교차성의 정의를 흑인 페미니즘 사상으로부터 그 시원을 찾아보고, 디자인에 있어서 교차성 개념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개괄한다.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작품 이미지와 관련 텍스트를 수집한다. 실라 스튜디오(SheilaStudio)를 비롯하여 워커아트센터, 브루클

린 뮤지엄, MoMA PS1 등의 아카이브를 통해 드 브레트빌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대표작을 아우르고 초창 강연, 아티클, 인터뷰 자료 등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6-10]. 수집된 디자인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조형성, 디자인 방법론, 표현 매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후 교차성 관점에서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 전반에 발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디자인

2.1 교차성의 정의

전 세계적으로 여성 삶의 다양성에 응답하는 포스트-포스트 페미니즘 또는 제4의 물결 페미니즘 흐름이 일고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의 삶을 단일한 대표 의제(제1의 물결은 여성참정권운동, 제2의 물결은 여성해방운동)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동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국내 페미니즘 계보에서는 제3과 제4의 물결 구분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성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페미니즘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넷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페미니즘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 보편화된 주류 개념인 김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 미국, 1959~)의 '교차성' 개념이 여성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여성주의 담론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11]. 흑인 페미니즘 사상에 기원한 교차성 개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단일한 축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축의 복합, 즉 교차적 경험의 관점에서 다루야만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교차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엠마 디그레핀이라는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엠마 디그레핀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자 노동자인 부인, 어머니였죠. 실은 지역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인종 및 성차별을 당했다는 엠마의 주장을 각하한 판사가 쓴 법적 의견문에서 엠마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매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엠마는 자신의 가족과 다른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나 입사 지원을 했지만 채용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흑인 여성이라서 채용되지 않

있다고 생각했습니다[12].

페미니즘 논의에 크렌쇼가 교차성 개념을 도입한 것은 디그레핀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였다. 크렌쇼는 “교차적 경험은 인종 차별과 성차별의 합보다 더 큰 것으로서 교차성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으로는 흑인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말로서 교차성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13].

교차성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상황과 필요 안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일이다. 단일한 축으로 어떤 집단을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주변화’되고 마는 어떤 사건들을, 여러 축의 복합적인 작용을 모두 주시함으로써 ‘탈주변화’하는 시도다. 교차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권력들의 교차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억압의 축을 단선화 시킴으로써 이해불가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독특한 경험들의 존재를 지적하는 개념이다.

2.2 디자인에 있어서 교차성의 개념

교차성은 여성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넘어 보편적 약자성, 주변화된 존재의 탈주변화 맥락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소아마비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중증 장애인이 된 환자의 경험은 아버지로서의 가족 정체성, 탐험가이자 일차 수출입상으로서의 직업 정체성과 교차되었을 때 ‘평생 병동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다’에서 ‘가족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로 확장된다 [14]. 이 실제 사례는 교차적 정체성을 통해 구조를 직시할 때 어떻게 새로운 발견(이동식 전동 호흡기를 장착한 휠체어)과 국가 정책의 변화(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보장)를 이끌어 내는지 보여 준다. 동질적이고 순도 높은 단일한 축을 공유하는 병동에서가 아니라 병동 밖의 가족, 친구, 후원자들과 함께 복합적 축의 교차적 연합을 이루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어떤 필요와 결핍이 만날 때 그 교차점을 세심하게 살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면, 교차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지닌 보편적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디자인의 사용자 경험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교차성은 디자인 학계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8년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디자인 리서치 소사이어티(Design

Research Society) 국제 컨퍼런스에서 코스탄자-초크 사샤(COSTANZA-CHOCK Sasha, 미국, 1976~)는 ‘Design Justice: Towards an Intersectional Feminist Framework for Design Theory and Practice’를 발표함으로써 디자인의 실천적 맥락에서 교차성 개념의 시사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샤에 따르면, 디자인에 있어 교차성의 실천은 디자인이 지닌 정치적인 힘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디자인이 놓인 권력의 맥락을 전복하여 잊거나 털 조맹된 입장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15].

한편,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은 2018년 3월 워커아트센터 초청 강연에서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으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위치성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어진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종종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이런 관점에서, 위치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형 내러티브(linear narratives)보다 회로(circuits)를 설계하는 것[디자인 방법론]을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돕는다[16].” 이와 같은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철학은 ‘선형 내러티브’ 즉, 단일한 축을 고려한 디자인의 대척점에서 ‘회로를 작성하는 것’ 즉, 두 개 이상의 교차성 축을 고려한 디자인이 지닌 가능성을 역설함으로써 드 브레트빌 디자인 전반에 드러난 교차성 개념을 분석할 근거를 보여준다.

3.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특징

이상으로 살펴본 교차성 관점에서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드 브레트빌 디자인 작업 전반에 드러나는 조형적, 표현매체적, 디자인 방법론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발언의 타이포그래피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타이포그래피의 주된 사용이다. 디자이너 자신의 메시지가 아닌, 작품이 놓이는 맥락에서 발언되어야 할 이웃의 목소리를 담은 매개체로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것이 작업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다.

3.1.1 At the start...At long last...

드 브레트빌의 대표작인 Fig. 1 <At the start...At

long last...')는 지하철역 공공 벽면 그래픽을 문자 중심으로 해석해 낸 드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타일 색상이나 이미지 율을 이용한 디자인이 공공 그래픽의 주를 이루는 반면, 드 브레트빌이 제안한 디자인은 지하철 이용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언어를 문자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벽면 타일에는 'At the start...'와 'At long last...'라는 두 가지 문구가 마주보도록 각각 설치되었다. 반짝이는 색상 타일로 해당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한 뒤 '...(말줄임표)를 넣음으로써 뉴욕에서 가장 긴 노선인 A 라인의 마지막 지하철역인 207번가 역을 이용하는 출퇴근객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언어로 스스로가 문장을 완성해 나가도록 유도했다. 말줄임표 뒤로 이어지는 타일에는 해당 역 주변의 거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인용문들을 새겨 넣었다.



Fig. 1. At the start...At long last...(1999)

3.1.2 Search: Literature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이 새로 건립되는 장소는 원래 이민자들이 자국어 신문을 읽기 위해 주로 이용하던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다. 거대한 도서관 건물로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드 브레트빌은 기존의 지역사회 이민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작업 안에 활용했다. 그가 착안한, 이민과 도서관의 공통점은 고향 또는 집에 없는 것을 찾는 여정이라는 점이었다. Fig. 2 작품의 제목인 'Search: Literature'가 나타내는 바처럼 도서관에 소장된 전 세계의 소설, 시, 영화 가운데 '찾는 여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골라 그 제목을 자국어 원제로 도서관 입구 계단에 아로새겼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신축 건물이 건립될 때 외부 중앙 계단에 새겨지는 '중요한' 인물들의 인용구와는 완전히 반대인, 덜 중요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법으로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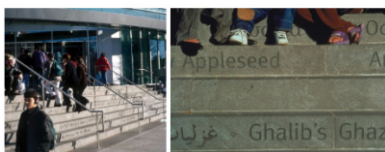


Fig. 2. Search: Literature(1998)

3.2 내러티브의 수집

드 브레트빌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작품의 기반이 되는 콘텍스트를 작품 주변의 맥락에서 발견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거나 작품을 둘러싼 인물들과 협업한 리서치를 통해 내러티브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다.

3.2.1 Hillhouse H.S. Academic Entrance Lobby

예일대학교 건물들 중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힐하우스 고등학교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학교의 중앙로비에는 코네티컷 뉴헤이븐시 문화부가 후원하는 벽면 그래픽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당선된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Fig. 3은 벽면 그래픽의 주된 요소로 지역 사회의 내러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드 브레트빌이 디자인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건축 설계안이 진행되어 로비 벽면 타일로 12인치 짜리 백색 타일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드 브레트빌은 기존의 12인치 타일의 일부를 4인치 모자이크 타일로 대체하면서 힐하우스 고등학교 대부분의 재학생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모자이크 타일의 문양은 아프리카 고유 전통 문양인 켄테 옷감의 패턴을 활용함과 동시에 타일 안에 새겨질 인용문을 힐하우스 졸업생들로부터 수집했다. 1960년대에 학교 건물이 철거되면서 다민족 인구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졸업생 인터뷰 수집은 한 학생에서 다른 학생으로 이어지며 인용문의 완성까지 구전으로 이루어졌고 벽면 그래픽의 완성은 곧 힐하우스 졸업생들의 재회와 학교 역사의 재건을 의미하게 되었다.



Fig. 3. Hillhouse H.S. Academic Entrance Lobby(2003)

3.2.2 Grand Central Market

로스앤젤레스 라티노 거주지역의 중심이 되는 마켓인 그랜드 센트럴 마켓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을 때 드 브레트빌은 공사장 벽면 가림막을 위한 그래픽 Fig. 4를 의뢰받았다. 이 작업에 대한 접근 역시 라티노 마켓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억을 수집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라티노들의 경험, 자국에서 온 식재료가 주는 기억,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의 자국민 역사를 이어주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내러티브

를 수집하고 이를 인용문으로 새긴 벽면 그래픽을 제작했다. 이 그래픽은 이후 그랜드 센트럴 마켓의 디자인에도 꾸준히 활용될 만큼 지역민들과의 지속적 공명을 입증했다.



Fig. 4. Grand Central Market(1983)

3.3 장소특정적 설치

드 브레트빌 작업의 주요 특징 중 다른 한 가지는 지역 사회와 공명하는 작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장소특정적 설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정장소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람객을 환대하는 역할을 한다.

3.3.1 Bidy Mason: Time & Place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여성 비디 메이슨이 살던 곳에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그녀의 삶을 기리는 작업물로 드 브레트빌은 장소특정적 작업 Fig. 5를 제안한다. 본래 주차장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 장소로 계획되었지만 드 브레트빌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디 메이슨이 이곳에 살았음을 볼 수 있도록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길가의 벽면을 작업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조산사이자 기업가로서의 비디 메이슨의 삶에서 감명을 받은 드 브레트빌은 비디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조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스토리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의 역사와 뒤엉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영구적인 설치기법인 콘크리트 음각 기법을 채택했다. 비디 메이슨이 사용했던 물건과 사료들을 실제 크기로 벽면에 아로새기는 작업을 통해 장소특정적 설치가 지닌 힘이 배가되었다.



Fig. 5. Bidy Mason: Time & Place(1989)

3.3.2 Take a Break...Out to lunch...Back to work...

로드아일랜드 주의 노동부 건물들이 통합되면서 시작된 야외 조형물 및 그래픽 작업 Fig. 6을 위해 드 브레트빌이 착안한 방법은 본래의 부지에 있었던 노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작업이었다. 극빈층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 수용소(workhouse: 극빈원)가 있던 자리에 드 브레트빌은 새로운 사과나무들을 심고 나무 주위로 원형 회전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했다. 이 장소특정적 설치물들은 극빈원 수감자들을 고용해 유지했던 지역의 사과 과수원을 상기시킴으로서 노동의 부재와 현재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관객을 이끈다. 회전하는 테이블과 그 주변에 놓인 의자에는 글자가 아로새겨져 있는데, 회전판을 돌리면서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10,000여 가지의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들은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 즉,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삶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저항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일하기를 거부당했을 때를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을 생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과 삶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회전하는 테이블을 돌리는 손잡이와 글씨가 인쇄된 방식이 관람객을 환대한다.



Fig. 6. Take a break...Out to lunch...Back to work... (1995)

4.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

이상에서 살펴본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은 발언의 타이포그래피, 내러티브의 수집, 장소특정적 설치를 통해 디자인에 반영되는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포함시켜 교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드 브레트빌 자신이 표방한, “비선형적 내러티브로서의 회로”를 통한 교차적 경험의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지닌 정치적 힘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디자인이 놓인 권력의 맥락을 전복하여 잊히거나 덜 조명된 입장들을 포용하는 교차성 개념에 기본을 두고 있다.

Table 1과 같이 디자이너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의미론적 연구는 시대별로 페미니스트 비평 관점의 이행을

보인다. 1993년 모드 라빈과 엘런 럽튼은 각각 주방 가위로 자른 한나 호흐의 포토몽타주 비평, 주방과 사무 공간 속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디자인 변화상 비평을 발표했다. 2018년 코스탄자-초크 사샤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디자인 정의를, 드 브레트빌은 교차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필요의 축을 반영하는 디자인에 관한 비평적 관점을 보여준다. 1990년대 페미니스트 프랙티스 비평의 관점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른 디자인 사용자 경험 확장을 다루던 경향에서 2010년 이후 동시대 교차성 페미니스트 비평의 관점은 '여성'에서 '사회적 약자', '주변화된 존재'로 다양화, 탈주변화하는 이행의 양상을 보인다.

Table 1. Transition of Feminist Critique Perspective

Year	Author	Title	Perspective of Feminist Critique
1993	M. Lavin	Cut with the Kitchen Knife: Weimar Photomontages of Hannah Hoch	Women's right for equal labour
1993	E. Lupton	Mechanical Brides: Women and Machines from Home to Office	Change of gender stereotype
2018	C. Sasha	Design Justice: Towards and Intersectional Feminist Framework for Design Theory and Practice	Justice for social minorities and diversity
2018	S. L. De Bretteville	Insights 2018: Sheila Lebrant De Bretteville	Visualization of invisibility, subjectification of object, demarginalization of marginality

이상에서 살펴본 교차성 개념에 기본을 두고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 경향을 '비가시성의 가시화', '객체의 주체화', '변방의 탈주변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4.1 비가시성의 가시화

드 브레트빌의 작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이웃의 교차적 경험을 수집하고 기록함으로써 보이지 않거나 잊힌 존재, 목소리, 사회집단을 가시화해 왔다. 뉴욕 A라인 지하철 노선의 마지막 역 207번가 역사의 내부 그래픽 작업 Fig. 7에서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지역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지하철과 관련한 경험을 가시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자주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지만 언제나 사라지는 존재인 음악가들을 벽면 그래픽의 악보와 바닥 타일 및 난간 패턴의 히스패닉 문양(당시 역사의

대부분 음악가들의 민족성을 대변)으로 비가시적 존재를 가시화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리틀 도쿄에 위치한 1,500피트 길이의 보도블록 그래픽 작업 Fig. 8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점을 운영했던 지역사회 일본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과 역사를 가시화했다.



Fig. 7. At the start...At long last...(1999)



Fig. 8. Omoide no Shotokyo(1994)

4.2 객체의 주체화

드 브레트빌의 작업은 장소특정적 사이트의 이용자를 다양한 경험의 축으로 이해한 접근을 통해 객체화될 수 있는 이용자를 장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왔다. 가령, 홍콩 디자인 연구소의 디자인 작업 Fig. 9를 위해 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드 브레트빌은 연구소를 출입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앉아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발견했다. 연구소 메인 홀의 에스컬레이터 옆 유휴 공간을 학생 라운지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한 드 브레트빌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빈번히 활용하는 학생들이 이 공간과 상호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LED 패널을 제작했다. 드 브레트빌은 접속사가 관계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에 착안하였는데, 특히 광둥어의 접속사는 영어와 달리 문장의 중간에 들어간다는 특징을 사용하여 24개의 광둥어 접속사들을 무작위로 LED 패널 위에 발신하고 접속사 사이사이에 사용자가 송신하는 단어(이메일 계정으로 내용 검열 없이 수집)를 출력한 뒤 방을 두 바퀴 돌고 사라질 수 있게 디자

인했다. 잠시 머물다가는 환경 안에서 객체인 이용자가 공간의 주체가 되어 언어로 관계를 맺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접근법은 드 브레트빌의 초기작에서부터 꾸준히 발견되는데, 아스펜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 신문의 디자인 Fig. 10을 의뢰받았을 때에도 드 브레트빌은 컨퍼런스의 참여자들을 '위한' 신문이 아닌,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신문을 기획한다. 컨퍼런스 입회와 함께 참가자들은 신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키트를 부여받고 컨퍼런스 기간 내내 다양한 부스에서 참가자들의 친필 기고와 기록물을 받는 동안 신문은 비어있었다. 이와 같이 신문을 읽는 객체가 신문을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디자인의 과정을 전복시킴으로써 드 브레트빌은 다양한 권력의 축이 내포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교차성 방법론을 끊임없이 추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Fig. 9. Hongkong Design Center(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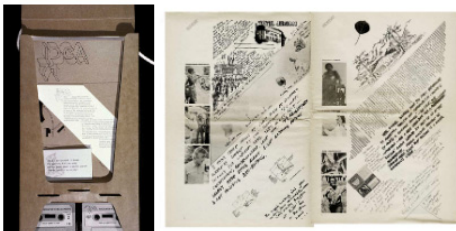


Fig. 10. Aspen Times(1971)

4.3 변방의 탈주변화

드 브레트빌의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은 당대 사회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을 사시화하고 객체화된 목소리를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변방의 존재를 탈주변화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특히 드 브레트빌이 주로 활용한 타이포그래피는 휘발되기 쉬운 언어의 유체성이 지닌 한계를 영구히 보존되는 콘크리트 캐스팅, 벽면에 아로새기는 타일 제작 등을 통해 주변화된 변방의 존재들, 기록들, 역사들을 탈주변화하였다. 비디 메이슨을 기리는 벽면 그래픽 작업 Fig. 11은 사라진 비디 메이슨의 집 부지에 설립된 주차 빌딩 엘리베이터 옆의 주변화된 공간에 설치될 뻔 했지만 드 브레트빌은 역으로 시 정부에 길거리 벽면을 사용

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보행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비디 메이슨의 삶과 역사가 존재했음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탈주변화를 달성했다. 드 브레트빌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의 작업들 대부분이 위치하는 장소가 주변성 그 자체인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변화된 지역의 힐하우스 고등학교는 그 위치 역시 예일대학교 부지의 변방에 위치했는데, 드 브레트빌은 힐하우스 고등학교의 리모델링을 위한 로비 벽면 그래픽 작업 Fig. 12를 통해 주변화된 목소리를 영구히 보존된 벽면 타일로 재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예일대학교 관리공으로 일했던 힐하우스 재학생의 아버지(그 역시 힐하우스 고등학교의 졸업생이었지만 1960년대 힐하우스 건물의 폐쇄로 졸업생 명부에서 사라졌다)의 인용구를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잊힐 뻔 했던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탈주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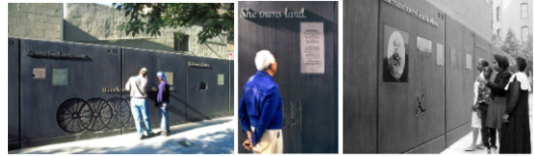


Fig. 11. Biddy Mason: Time & Place(1989)



Fig. 12. Hillhouse H.S. Academic Entrance Lobby(2003)

5. 결론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은 디자인이 지닌 정치적인 힘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디자이너였다.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 작업 전반에 드러난 특징은 발언의 타이포그래피, 내러티브의 수집, 장소특정적 설치로 정리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단선적인 선형 내러티브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교차적 경험을 포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의 양상으로 종합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이 놓인 권력의 맥락을 전복하여 잊히거나 덜 조명된 입장들을 포용하는 교차성 개념에 기본을 두고 드 브레트빌의 디자인에 나타난 교차성 경향을 찾아본 결과 크게 비가시성의 가시화, 객체의 주체화, 변방의 탈주변화 세 가지 통찰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월간 '디자인'은 2019년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로 한국 사회의 탈중앙화, 급진적 다양성 추구의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17]. 인간 삶의 가치, 사회 어젠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디자인 프랙티스 사례의 다양한 연구가 요청된다. 교차성 관점에서 살펴본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 작품세계의 시사점이 동시대 가치 변화에 발맞춰 디자인 철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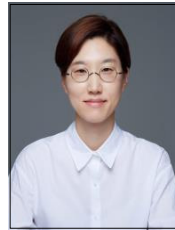
- [1] S. L. De Bretteville. (2018). *Insights 2018: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Yale University/Sheila Studio, <https://www.youtube.com/watch?v=QY8d80tGal4>
- [2] P. Kirkham. (2002). *Women Designers in the USA 1900-2000: Diversity and Difference*, Yale University Press.
- [3] Joan, R.(1999). *Design and Feminism: Re-Visio-ning Spaces, Places and Everyday Things*, Rutgers University Press.
- [4] G. Kim. (2018). Gender, Creation, and Economy, *LetterSeed*, 10(1), 12-19.
- [5] J. V. Toorn et al. (2004). *Design beyond Design*, Seoul: Sigong Books.
- [6] Sheila Studio. (2018). <https://sheilastudio.us>
- [7] E. Lupton. (1993). Reputations: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Eye Magazine*, <http://www.eyemagazine.com/feature/article/reputations-sheila-levrant-de-bretteville>
- [8] Brooklyn Museum.(2018). <https://www.brooklynmuseum.org>
- [9] Yale University. (2018). <http://art.yale.edu/SheilaLevrantDeBretteville>
- [10] AIGA Gold Medalist. (2018). <https://www.aiga.org/medalist-sheilalevrantdebretteville>
- [11] J. Park. (2018). Doing Intersectional Analysi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Women's Studies Review*, 35(1), 163-183.
- [12] K. Crenshaw. (2016). The Urgency of Inter-sectionality, A talk at TED Women 2016 [video file], https://www.ted.com/talks/kimberle_crenshaw_the_urgency_of_intersectionality. (translation: J. Park)
- [13] K. 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14] Movie title (2017). Breathe.
- [15] C. Sasha(2018). Design Justice: Towards an Intersectional Feminist Framework for Design Theory and Practice, *Proceedings of DRS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25-28 June 2018*, 529-540.
- [16] S. L. De Bretteville. (2018). *Insights 2018: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Yale University/Sheila Studio, <https://www.youtube.com/watch?v=QY8d80tGal4>
- [17] E. Kim, E. Jeon. (2019). Design & Life Keyword 2019 for Creators, *Design*, (487), 112-117.

김 린(Kim, Lynn)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사)
- 2012년 8월 : 런던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그래픽디자인(석사)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박사수료)
- 2017년 9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 E-Mail : lynnkim@dongyang.ac.kr

박 수 진(Park, Soo-Jin)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정보디자인(학사)
- 2001년 8월 :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Central Saint Martins)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 E-Mail : curioussofa.sj@gmail.com